

전주 대형 한지트리로 '불 밝힌다'

FIFA U-20 월드컵 대회 등 성공개최 기원 한지문화축제 조직위, 오늘 점등식 열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주한지문화 축제와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17개 한지등과 대형 한지트리에 불이 켜진다.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남호)는 25일 오후 8시 30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한지문화축제 성공기원을 위한 한지문화축제 및 한지문화축제 조직위'를 개최한다.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 대형 한지트리가 제작된 것은 축제가 열린 21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한지문화축제조직위는 올해 한지축제의 슬로건인 '전주한지, 온누리에 펼쳐다'의 콘셉트에 맞춰 2017개의 한

지등을 전문문화전당 곳곳에 펼쳐 달았다. 또, 높이 10m에 이르는 대형 탑에 한지트리를 설치했다.

한지문화축제와 한지문화축제를 통해 한지의 빛이 온누리에 펼쳐지기를 염원하는 마음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오는 5월 19일 전주한지문화축제 개회식 때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점등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한지문화축제조직위는 한지등과 한지트리로 장식된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이 1달 동안 전주의 아리랑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는 또 '한지소원트리'도 설치



해 축제기간 동안 전주시민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한지에 적어 한지트리에 게시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남호 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번 점등식을 앞두고 "전주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한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지트리와 한지빛살을 조성했다"라며 "전주한지의 우수성이 한지트리를 통해 온누리에 펼쳐나가기

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지의 본고장인 전주에서 열리는 한지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2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전주한지의 저변이 확대되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축제준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는 소리꾼 남상일과 록밴드 국카스텐 특별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개막식과 대한민국한지예술대전 수상작 전시, 전주한지패션대전, 한지산업박람회, 한지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목질폐기물 가공 신소재 제조 가능”

전북대 황정우 박사, 목재공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황정우 박사(목재응용과학과·지도교수 오승원)가 목질폐기물인 톱밥과 농업 폐기물인 왕겨, 그리고 친환경 소재인 숯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 한국목재공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황 박사는 최근 전북대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톱밥과 왕겨 및 숯으로 제조한 세라믹의 탄화온도와 혼합 비율이 역학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관련 학계의 호평을 받았다.

이 연구는 폐기물인 톱밥과 왕겨 및 친환경 소재인 숯을 이용하여 세라믹을 제조한 후 역학적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세라믹 제조에 관련된 적정 제조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팀은 톱밥과 왕겨 및 숯의 혼합비율과 탄화온도를 다르게 하여 세라믹을 제조하는 실험을 진행, 탄화온도와 혼합비율에 따른 제조 조건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해 "목질폐기물인 톱밥과 농업폐기물인 왕겨를 가공 처리하여 목질 패널 제품과 신소재 개발의 원료로 이용한다면 농가소득 및 목재 수입의 대체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3대반칙 행위 위반자 822명 적발

전북경찰, 16명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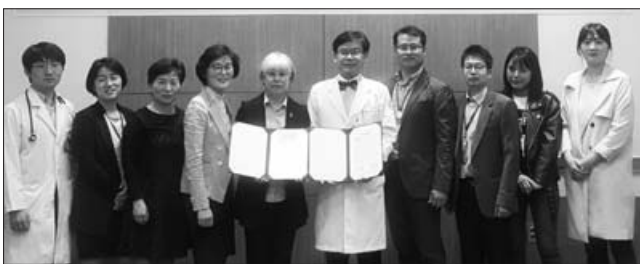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3대 반칙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822명을 검거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단속한 3대 반칙 행위는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과 사이버 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명예훼손) 그리고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이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안전비리 및 선발비리 214명 ▲인터넷먹튀 149명 ▲보이스피싱·스미싱 359명 ▲사이버명예훼손·모욕 100명 등이

다. 실제로 대기업 간부를 잘 알고 있다고 속인 뒤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약 4억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됐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수백대의 화물차량을 수리해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정비업자 2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 달 17일까지 3대 반칙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각종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24일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한누리병원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아암 환우 함께 돌봐요”

전주시보건소, 전북대병원과 협약 체결
아이들에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24일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한누리병원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암환우를 위한 영양과 신체활동, 구강관리, 흡연·음주예방 등의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누리병원학교(김선준 한누리병원 학교장)는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내에 설치된 과학교육형태의 학교로, 현재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23명이 재학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날 협약에 따라 보다 많은 한누리병원학교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원치료 소아암환우의 외래 진료가 진행되는 매주 넷째 주 화요일 오후에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음식에 균형 있는 영양 △스트레칭 위주의 신체활동 △올바른 치아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교육 등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성폭행 의혹’ 전북도청 공무원 ‘무혐의’

도 “유무죄 떠나 징계 처분”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전북도청 인권팀 장직을 수행하던 사무관 전모씨에 대한 혐의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전주시지검은 24일 여대생을 모델로 대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모델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예정대로 징계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성 범죄와 관련해 무죄가 나온 것이지만, 행위 자체로서는 적법하지가 않다”며 “징계는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전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는 전모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고, 전씨는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인문주간행사’

전주시가 전주인문학 발전과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자체 인문주간 행사를 마련하고, 책의 도시 선포식과 함께 다채로운 인문학행사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전주만의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자체 인문주간을 선포했다.

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67개 전주인문학365 네트워크 기관·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오감인문학 축제인 '제2회 전주시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인문학 쪽빛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2회 전주시인문주간은 완산·덕진도서관, 완판본문화관, 온·다라인문학연구단 등 전주인문학 365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협력해 인문학콘서트를 비롯해 인문학토론과 인문학좌, 인문학탐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3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문주간 행사에서는 열린시 민강좌뿐만 아니라 이광재 소설가와 체인선 동화작가, 김효은 그림책작가 등 만나보고 싶은 다양한 주제의 작가들을 초청,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제54회 법의 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54회 법의 날 법치주의를 되새깁니다!



회장 황규표

부회장 남준희

부회장 홍요셉

- 총무상임이사 박형윤
- 재무상임이사 이희열
- 공보상임이사 이덕춘
- 인권상임이사 장석재
- 교육상임이사 김학수
- 법제상임이사 정재원
- 여성상임이사 이연주
- 군산상임이사 이현규
- 정읍상임이사 박혁
- 익산상임이사 전완수

- 이사 황인택
- 이사 온성욱
- 이사 지관엽
- 이사 강성명
- 이사 국윤호
- 이사 이종기
- 이사 최낙준
- 이사 강영신
- 이사 김수태
- 이사 박영곤
- 이사 박민수

- 이사 김현승
- 이사 이삼일
- 이사 김용선
- 이사 김영노
- 이사 국순희
- 이사 박아희
- 이사 우현아
- 이사 하현환
- 이사 박기정
- 감사 황정열
- 감사 홍호

- 마을변호사 제도를 선도하는 전북변호사회!
- 국선변호인 활동을 통하여 인권옹호에 앞장서는 전북변호사회!
- 결실아동지원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전북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